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점과 지침에 대한 토론

노 경 희 동아출판(주) 연구기획팀장

이제 곧 2015 교육과정이 고시되면, 새 교육과정에 맞추어 교과서 개발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얼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 수업에서 교과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해 구체화된 교육과정을 경험합니다. 또한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전학습 체제(교육부, 2013)를 지향하는 현 교과서정책 하에서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은 교육과정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여건의 확보는 개발사의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나라 학교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여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에 한정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김경자 교수님의 원고에서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학교 급별 공통사항(마)를 보면 집중이수 실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중이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는 지침으로 제시되었고, 그 뒤 시행과정에서 몇 차례 정책적 개선을 통해 현재는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가 8개 이내 편성 교과목에서 제외가 허용됨으로써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기당 8개 교과목이 아니라 11~12개 교과목을 편성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교과 집중이수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한혜정, 이승미, 2014 재인용). 그런데, 이 교과 집중이수제도는 교육현장에서 전입생 미이수 혹은 중복이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교과서 개발방식에 큰 영향을 미쳐서, 지난 교육과정에서 모든 과목의 교과서가 학년별 순차개발이 아닌 일괄개발을 통해 검인정 심사를 받았습니다.

교과서 일괄개발 및 일괄 검인정 심사는 교과서 집필진, 교과서 편집자, 그 외 컷 작가, 삽화가, 디자이너 등 교과서 개발인력을 단기간에 집중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교과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기관도 심사인력 및 심사기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매년 순차적으로 개발하며 다음 해 개발에서 당해 수렴된 현장의견을 바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괄개발은 순차개발에 비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교과서 개발방식입니다.

현장에서의 집중이수 현황에 대한 설명은 아래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는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집중이수를 하지 않았지만, 집중이수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6학기 6권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교육과정 적용 첫 연도에 모두 개발 완료해야만 했습니다.

집중이수가 좋은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고 학교의 자율성 확보와 학습부담 적정화를 위해

〈표〉 2011년 중학교 신입생의 집중 이수 운영 현황

구분	국어 (442)	사회(역사포함)/ 도덕			수학 (374)	과학/ 기술가정		체육 (272)	예술		영어 (340)	선택(204)		
		사회 (170)	역사 (170)	도덕 (170)		과학 (374)	기술 가정		음악 (136)	미술 (136)		한문	정보	생활 외국어
6 학기	3221	28	24	26	3218	3117	81	2797	10	9	3217	10	3	10
5 학기	-	92	3	18	1	44	112	165	16	13	3	8	1	-
4 학기	-	444	54	109	2	52	2827	248	69	52	1	213	45	42
3 학기	-	508	319	261	-	8	163	11	241	241	-	105	15	10
2 학기	-	2148	2798	2806	-	-	38	-	2883	2905	-	2232	916	830
1 학기	-	1	22	1	-	-	-	-	1	1	-	385	396	232
학교수	3221	3221	3220	3221	3221	3221	3221	3221	3220	3221	3221	2953	1376	1124

※ 2011.4. 전국 중학교 1학년 대상(3,221교)

분명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집중이수 적용 현황과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지원을 위해 집중이수 대상과목 혹은 집중이수 제외과목을 교육과정 혹은 후속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교과서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의 교과목 구성(홍원표 교수님 원고 붙임자료)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의견 드립니다. 고등학교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강화하고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과목이 구성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 교과(군) 내에서 제시된 선택과목들이 교과서 개발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학교나 학생들이 그 과목의 특성을 보다 잘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각론에서는 각 과목의 특성이 좀 더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제시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체육교과의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탐구 4개 과목이 서로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 제시되어야만 교과서도 그 과목의 특성에 맞게 서로 차별적으로 개발이 되고, 이에 따라 학교나 학생들의 선택에도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는 국립국어원 국어사전에 그 첫 번째 의미로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 따라 주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찬한 책’으로 나오고, 두 번째 의미로 ‘해당분야에서 모범이 될 만한 사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나옵니다. 해당 교과의 교육과정이 구현된 학교수업의 주교재이며, 모든 보조 교수-학습교재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과서입니다. 따라서 위 2가지 제언 내용과 같이 교육과정에서 교과서 개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차후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문헌

교육부(2011). 집중이수제 및 전입생 미이수 대책 관련.

교육부(2013). 2013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한혜정·이승미(2014). 중학교 교과 집중이수 실태 분석 및 차기 국가 교육과정 개정예의 반영 방안: 학교 교육과정 편성안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Vol 17. No. 3, pp.1~21.